

## 현지조사 후기

연구주제: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크메르 크롬 공동체의 언어 사용과 정체성 형성

Sopanha BUNTHOEUN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수료

본인은 < 2025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현지조사는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에 거주하는 크메르 크롬(Khmer Krom)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수민족 언어 사용과 불교 종교 실천이 어떻게 일상과 공간 속에서 유지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 지역은 켄터(Cần Thơ), 속짱(Sóc Trăng), 짜빈(Trà Vinh)이며, 보조 조사 지역으로 호찌민시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크메르 크롬 공동체에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베트남의 다민족·다언어 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위치 지워지면서도, 크메르어와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 전통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콩델타 지역은 크메르 불교 사원이 공동체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며, 종교 의례·교육·일상 언어 사용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현장으로 판단되었다.

조사 지역 가운데 켄터는 메콩델타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크메르 크롬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교육·경제 중심지라는 점에서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반면 속짱과 짜빈은 크메르 크롬 테라와다 불교 사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지역 공동체의 종교·언어 실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핵심 현장이다. 본인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중심지와 주변부를 넘나드는 다 지역 현지조사를 설계하였다.

<사진 1> 현지조사 기간 중 방문한 켄터 시 Wat Munirensay 사원 (2025년 4월 17일)





현지조사 기간 동안 본인은 주로 불교 사원을 방문하여 승려, 청년 신도, 지역 주민들과의 비형식적 대화와 반구조화된 민족지적 대화를 진행하였다. 공식적인 인터뷰보다는 사원 방문, 식사 시간, 학습 공간, 의례 준비 과정 등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크메르어 사용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종교적·도덕적 가치와 공동체 소속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실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2> 현지조사 기간 중 방문한 짜빈 Wat Svay Siem Thmey 및 Wat Ktung 사원 전경 (2025년 5월 3-4일)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해 간 연구(Preliminary Fieldwork, 2024년에 수행함)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도 느꼈다. 사원마다 운영 방식과 교육 형태, 언어 사용 양상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 자체가 크메르 크롬 공동체 내부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현지에 직접 머물며 관찰했기에 가능했던 성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지조사는 일정 변경과 대기 시간이 잦았지만,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예정된 만남이 연기되더라도 사원 부근에 머물며 의례를 관찰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경험은 문헌 연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현장의 감각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 연구는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 현지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족지적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현지조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지원사업은 연구자가 장기간 현지에 체류하며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 주제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본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는 향후 석사학위 논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소수민족과 언어·종교 연구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